

##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참여율 50% 목표 설정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 02-3156-7125, e-mail : seonshin@kwidmail.re.kr

### 요 약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율이 51.3%이며, 남성은 취업자가 더 많고 여성은 미취업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50%로 제안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2009년 현재 38.1%이나, 정책대상인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율은 51.3%이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미취업 상태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참여율 목표는 50%보다 높게 설정해야 할 것이나 우선 50%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목표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 여성 참여율 목표비율을 50%로 설정하는 것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즉,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미취업자들이 사업 종료 후

에 취업에 성공하면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남성 참여율이 현재와 같이 60%를 초과하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대상의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고,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나 직업역량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

-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등록 시점과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7개월이 지난 시점을 비교할 때, 취업자가 45.6%에서 70.6%로 증가하였고, 미취업자는 44.4%에서 30.3%로 감소하였는데, 여성은 취업자 비율이 34.9%에서 63.9%로 29.0% 포인트 증가하였고, 남성은 55.9%에서 77.4%로 21.5% 포인트 증가하였다. 미취업자가 사업 종료 후에 취업한 경험은 남성(65.2%)이 여성(53.7%)보다 많았으나, 남성 참여자의 대부분이 취업자였고 여성 참여자의 대부분은 미취업자였기 때문에, 결국 취업자 비율의 증가는 여성 쪽에서 더 높았던 것이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취지에 역행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은 우선적인 정책대상 집단으로 성인 미취업자와 경력단절자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청년층 미취업자를 들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여성 참여자의 취업이나 창업 기회가 남성보다 많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고, 직업능력 제고 효과도 남성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 2. 정책의 추진방향

-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 축소
  -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정책대상으로 취업자와 미취업자(실업자 포함) 중에서 어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취업

자가 45.6%를 차지하는데, 취업자 대상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과도 중복될 우려도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이 다른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 대상 사업도 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취업자를 전적으로 제외시키기 보다 그 비중을 30% 이하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취업자 대상의 사업은 취업자 대상 사업에 비해 취업의지가 있는 수강생 선발과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2009년에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가 120 가지였으므로, 프로그램 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도 6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향후 프로그램 수 증감에 따라 필요한 예산규모가 다를 것이다. 물론 현재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사업비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공모사업분야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 제공

- 여성 참여율 50%를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여성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사업 유형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시·도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계획서는 여성 참여율 가이드 준수 예정 여부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선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가이드(안)

공모분야	사업특징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성 참여율 가이드
기초자치단체사업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40%	최저 50%
광역자치단체사업	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40%	최저 20%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20%	최저 40%

- 남성 지배적인 직업분야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취업의지가 있고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단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없어도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선정기준 수정

- 지역사회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밀착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의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지역의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소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낮다. 향후에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정도보다 현장의 인력수요에 밀착된 맞춤형 여부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선정된 경우에도 사업홍보와 수강생 선발과정 운영에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단 컨소시엄에 여성 HRD 관련기관 참여
  -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단 컨소시엄에 지역의 여성 HRD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HRD 관련기관의 역할은 시·도사업계획 수립 자문활동, 신규 프로그램 제안,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위원회 참여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정책효과

- 미취업 지역주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고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함.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을 핵심 정책대상에 집중함.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가능인구를 확대함.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정책과)

---